

중·고등학생의 의복 착용 실태 및 맞음새에 관한 연구

홍수숙 · 홍은희 · 서미아[†]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1. 서론

사춘기와 함께 시작되는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변화를 나타내며, 의미있는 인지적 성장을 나타내는 시기이므로 발달단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사춘기와 함께 나타나는 급속한 신체 변화로 인해 외모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까지도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며, 의복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청소년기의 정서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¹⁾.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특징들을 적절히 고려한 의복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최근 19세 이하의 청소년층이 의류, 패션업계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잡으면서 경기 불황 속에서도 청소년 의류 소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의류 소비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03년 이후 해마다 아동·청소년복의 소비규모가 증가율을 보이고 그 중 청소년층이 전체 의류 소비금액과 의복 수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행에 민감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가격이 높은 스포츠 브랜드가 유행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단가상승 및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층이 소비시장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의류업체들도 신사, 숙녀보다는 청소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캐주얼 브랜드의 마케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²⁾

그러나 이러한 의류업체의 마케팅 전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의복 구매시에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청소년층을 겨냥한 캐주얼 브랜드는 디자인이나 색상 등의 감각적인 요소에서는 그들의 욕구를 부합하지만 아직 완전히 성인의 체형으로 완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의 체형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패션에 대한 의식이 높은 데다 불황속에서도 성인에 비해 소비를 덜 줄이는 경향을 보이는 급변하는 청소년층의 취향을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에만 국한하려는 의류업체의 생산자적인 입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신체적 특징을 적절히 반영한 의류 치수 체계 설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성복의 착용 현황과 맞음

[†]교신저자 E-mail miasuh@hanyang.ac.kr

1)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2001), pp 287-288

2) www.samsungdesing.net/clude/news

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 의복 치수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들의 신체 적합도에 더욱 적절한 의복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인구통계학적 변인(연령, 성별, 거주지역, 로리지수)에 따른 중·고등학생의 의복 착용 실태 및 맞춤새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 13세~18세의 중·고등학생 8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김덕하,³⁾ 김경아⁴⁾ 등의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로 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3문항, 의복구매행동 10문항, 의복 맞춤새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 796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고 Frequencies, Chi-Square,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결론

1) 의복 착용 관련 일반사항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즐겨 입는 패션스타일에 관한 항목에서는 연령, 성별, 로리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평범한 캐주얼을 가장 즐겨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스타일 다음으로는 남·여학생 모두 유행 스타일을 즐겨입으며 비만형은 힙합 스타일을, 정상·수척형은 유행 스타일을 즐겨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착용 시 맞춤새 정도에 관한 항목에서는 연령별, 성별,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보통 정도로 입는 편이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과 남학생의 경우 크고 넉넉하게 입는 편이다에, 고등학생과 여학생은 몸에 꼭 맞게 입는다에서 많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서울 강북지역 학생들은 크고 넉넉하게 입는 편이다가 몸에 꼭 맞게 입는다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나,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은 두 경우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2) 의복 구매 관련 일반사항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의복 구매 시 동행자 항목에서는 연령별·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학생과 여학생은 부모와 같이 가서 구입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고등학생은 친구와 함께 간다가, 남학생은 엄마가 사다준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복 구매 장소로는 패션 전문 상가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 강북지역 거주 학생들은 패션 전문 상가를, 서울 강남지역 거주 학생들은 백화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구매 시 이용 매장으로는 캐주얼 매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성별, 거주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캐주얼 매장 다음으로 남학생은 기타와 스포츠웨어 매장을, 여학생은 영 캐주얼 매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복 구매 횟수는 모든 변인에서 3개월에 한번 구매한다에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로리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형이 2개월에 한 번에서 26.1%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여 정상형이나 수척형에 비해 자주 의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김덕하, "성장율을 고려한 여중생 교복 맞춤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70-75

4) 김경아, "사춘기 남학생의 기성복 착용실태 및 맞춤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2003) pp. 11-23

주로 구입하는 브랜드로는 정장 의류는 “폴로” 브랜드, 캐주얼 의류는 “지오다노” “나이키” “리바이스” 브랜드의 의복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로 착용하는 브랜드의 의복을 구매하기 시작한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 의복 구매 및 착용 관련 불만족 사항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아동복 코너에서 의복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남학생은 캐주얼이나 스포츠웨어의 사이즈가 맞아서, 아동복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어려워서 라는 응답을, 여학생은 디자인이나 색상이 어려 보여서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의복 구매 시 불만족 사항으로는 가격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연령별, 성별, 로러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중학생과 남학생은 디자인이, 고등학생과 여학생은 치수가 의복 구매 시 가격 다음으로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형은 가격에서 정상형·수척형은 디자인에서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구매 시 몸에 맞는 정도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의복의 맞음새에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엉덩이둘레와 허벅지둘레, 바지길이에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킷, 바지, 셔츠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만족하며, 특히 바지의 허벅지 둘레에서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로러지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재킷 및 코트의 어깨너비에서는 비만형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바지 허벅지둘레, 바지길이, 바지 밑위길이에서는 수척형, 정상형, 비만형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의복 구매 후 수선 관련사항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수선 경험 유무 항목에서 수선경험이 있다가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의복을 수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도중 의복을 수선한 이유는 신체치수가 맞지 않아서가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성별, 거주지역 별로 차이를 보였다.

수선 방법에 관한 항목에서는 허리둘레 수선방법으로 연령별, 성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고등학생과 여학생이 중학생과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이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 둘레, 상의길이, 바지넓이 수선방법으로도 줄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률과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체형의 개인차가 다양한 남·여 청소년들은 여유가 있고 활동이 자유로운 캐주얼 의복을 많이 선호하였으며, 맞음새가 더욱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급성장하는 청소년의 체형을 의류생산업체가 발빠르게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체형특성을 반영한 여러 사이즈의 의복을 생산하기에 채산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체형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량생산물량은 재고로 남게 되어 생산업체의 악순환만 계속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기성복의 맞음새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인체계측에 의한 체형분류에 따라 차별화된 치수체계를 제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김경아 (2003). “사춘기 남학생의 기성복 착용실태 및 맞음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한국

생활과학연구지.

김덕하 (2000). "성장을 고려한 여중생 교복 맞춤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자, 이경희, 신호정 (2001).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http://www.samsungdesing.net/clude/news>. (2004. 9. 24).